



두 가지 새로운 리미티드 에디션, 블루와 투명 사파이어로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는 제니스 **DEFY ZERO G** 사파이어

제니스에게 중력을 거스른다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 그 이상으로, 탁월한 기술력으로 개발해 특허를 취득한, 지금까지 그 어떤 워치메이커도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뜻합니다. **2008** 년 출시된 제니스 **Zero G** 는 짐벌 시스템 “그래비티 컨트롤” 이스케이프먼트 모듈을 장착한 유일한 손목시계 무브먼트로, 오프 올로제리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 모듈은 시계의 정확성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완화하는 획기적인 기능을 선보입니다. 수년간의 선구적인 연구로 탄생했으며, 독점적인 특허 취득으로 보호받는 이 탁월한 기술은 제니스 매뉴팩처가 끊임없이 추구하는 완벽한 크로노미터를 구현합니다. 창립 **160** 주년을 맞이한 제니스 매뉴팩처는 딥 셀레스티얼 블루 컬러의 사파이어와 폴 트랜스페어런트 사파이어로 제작된 두 가지 매혹적인 **DEFY Zero G** 모델을 선보이며, 탁월한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각 버전은 전 세계에서 단 **10** 피스 한정 출시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힘

제니스는 1865 년 설립 이래, 독보적인 정확성으로 시간의 본질을 포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을 초월해 상상을 뛰어넘는 탁월한 크로노미터를 향한 확고한 열정과 철학을 반영합니다. 2,333 개 이상의 크로노미터 어워드를 수상해 온 제니스는 천문대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워치메이킹 메종입니다.

제니스가 크로노미터 분야에서 달성한 수많은 혁신 중에서도 ZENITH Zero G 무브먼트는 정확한 타임키퍼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가장 까다로운 난제를 극복합니다. 중력은 시계의 위치에 따라 레귤레이팅 기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며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중력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시계가 특정한 위치에 오랜 시간 보관되었을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위치적 오류를 상쇄하도록 디자인된 푸르비옹입니다. 그럼에도 현대의 손목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손목 위에 착용되므로, 더욱 난해한 위치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니스 Zero G 무브먼트는 유서 깊은 해양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습니다. 장거리 항해에 필수적인 이 장비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선박 위에서 사용되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짐벌 시스템에 매달린 케이스 안에 크로노미터를 장착하여 완벽한 수평을 유지하고 중력의 영향을 즉각적으로 상쇄했습니다. 제니스 Zero G 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안정화 원리를 축소하여 손목시계에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전체 무브먼트가 아닌 레귤레이팅 기구만을 수평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무게에 따라 균형을 맞춰 늘 수평을 유지하도록 짐벌 시스템에 그래비티 컨트롤 모듈을 결합했습니다. 이는 두르비용처럼 오차의 평균값만을 내는 것이 아닌, 위치로 인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더불어, 무브먼트가 단일 위치에 고정되므로 위치메이커가 고도의 정확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치메이킹 기술에는 탁월한 소형화 기법과 엔지니어링이 요구됩니다. 7 년 이상의 개발 과정을 거쳐 탄생한 무브먼트는 그래비티 컨트롤 케이스와 관련된 특허를 통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배럴에서 이스케이프먼트로 토크를 전달하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토크는 정교한 원뿔 형태의 베벨 기어 시스템을 통해 그래비티 컨트롤 모듈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베벨 기어는 초소형 차동 장치에 장착되어, 기울어지는 모듈에 따라 방향이 변하더라도 회전을 일정하게 이동시킵니다. 이스케이프먼트는 이처럼 독창적인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구동 토크를 얻게 됩니다.

혁신적인 소형화 기법

2008 년 처음 공개된 제니스 Zero G 는 2018 년, 한층 컴팩트한 “그래비티 컨트롤” 자이로스코프 모듈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현재 이 모듈은 초기 모델의 단 30%에 해당하는 부피로 더욱 축소되었습니다. 1.3cm³(13.40mm x 10.90mm x 8.84mm)의 부피 안에 139 개의 부품이 자리하고 있으며, 윤활 처리가 필요 없는 항자성 세라믹 볼 베어링을 무려 9 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리미티드 에디션

제니스는 2021 년, 최첨단 오프 올로제리 칼리버를 재해석하고 보다 개방적이며 독특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체 무브먼트를 새로운 구조로 디자인했습니다. 더불어, 투명 사파이어 케이스 안에 칼리버를 장착하여 매혹적인 기계의 움직임을 모든



각도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올해 160 주년을 맞이한 제니스는 블루 및 투명 사파이어 소재의 46mm 케이스를 갖춘 두 가지 새로운 DEFY Zero G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입니다. 케이스 미들, 베젤, 케이스백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단단하고 스크래치에 강한 사파이어를 커팅하여 제작했습니다.

160 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 위에 오프셋 아워, 미닛, 스몰 세컨즈 핸즈와 각면 처리한 야광 아워 마커를 더했습니다. 골드 컬러 파이라이트가 수놓인 딥 블루 다이얼은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연상시키고, 이로써 구현된 자연스러운 텍스처가 각 시계에 고유한 매력을 불어넣습니다. 3 시 방향에는 50 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양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동 와인딩 스켈레톤 엘 프리메로 8812S 칼리버는 화사한 톤으로 별을 연상시키는 슬림한 브릿지와 눈부신 대비를 이룹니다. 시계가 움직일 때도 회전하며 수평을 유지하는 6 시 방향의 제로 그라비티 모듈은 오픈워크 구조를 통해 매혹적인 움직임을 드러냅니다. 실리콘 이스케이프먼트 휠이 니켈 실리콘 앵커와 조화를 이루는 한편, 밸런스 휠에 탑재된 두 개의 화살표 모양 레귤레이터가 제니스의 크로노미터 장인 찰스 플렉(Charles Fleck)의 디자인을 예찬합니다. 가장 탁월한 정확성을 자랑하는 엘 프리메로 8812S 칼리버는 5Hz 의 강렬한 속도로 박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듈의 평형추 표면에는 천체를 연상시키는 인그레이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니스 DEFY Zero G 사파이어 리미티드 에디션은 폴딩 버클을 갖춘 일체형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 스트랩과 함께 제공됩니다.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DEFY Zero G 모델은 제니스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부티크를 비롯한 전 세계 공식 매장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워치메이킹의 심장, 제니스

1865 년 스위스 르 로클에 설립된 제니스는 개척 정신과 정밀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16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선두를 지켜왔습니다. 제니스는 최초의 수직 통합형 스위스 시계 매뉴팩처로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개발 및 제조하며 워치메이킹 분야에 지속적인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1969 년 출시된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칼리버인 엘 프리메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밀성과 뛰어난 고진동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니스의 타임피스는 혁신과 뛰어난 장인정신을 향한 매뉴팩처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념합니다. CHRONOMASTER 컬렉션은 고정밀 크로노그래프에 대한 제니스의 우수한 전문 기술을 강조하고, DEFY 컬렉션은 기술적 혁신과 대담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PILOT 컬렉션은 모험을 함께할 특별한 동반자로서 제니스가 항공 분야에서 쌓아 온 풍부한 유산을 예찬합니다. 정밀성을 향한 한결같은 열정은 크로노미터 부문에서 기록한 2,333 회의 독보적인 수상 경력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오랜 시간 이어 온 제니스의 탁월한 헤리티지를 한층 강조합니다. 수상 경력의 대부분을 차지한 칼리버 135 는 최신 기술 솔루션과 소재의 통합을 통해 현대적인 구조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제니스는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는 G.F.J 컬렉션에 칼리버 135 를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영국해협을 횡단한 루이 블레리오의 역사적인 비행에서 펠릭스 바움가트너(Felix Baumgartner)의 기록적인 성층권 자유낙하에 이르기까지, 제니스 시계는 역사를 통틀어 커다란 꿈을 꾸며 비범한 성과를 이뤄낸 개척자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담한 정신은 제니스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으로 활약하며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미래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제니스는 15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선보여 온 탁월함, 혁신, 목표를 기념함과 동시에, 스위스 워치메이킹 분야의 최전선에 서서 기존의 관습에 도전하며 위대함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힘을 더하고자 합니다.

1865 년부터 현재까지, 르 로클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간 제니스는 워치메이킹의 심장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DEFY ZERO G

레퍼런스: 04.9003.8812/51.R584

핵심 사항: 풀 블루 사파이어 케이스. 전체 스텐레스스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8812. 레귤레이팅 기구를 수평으로 배치한 "그래비티 컨트롤" 자이로스코프 모듈. 현재는 초기 크기에서 30%로 축소. 유서 깊은 해양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오픈워크 다이얼. 무브먼트는 그래비티 컨트롤 케이스와 관련된 특허 1개로 보호.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8812

진동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50시간

기능: 12시 방향에 편심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드,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6시 방향에 자체 중력 제어 모듈,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표시창

마감: 특별한 투톤(블루 및 로듐) 시그니처로 장식된 플레이트와 브릿지 + 밀링 처리한 별들이 수놓인 하늘. 레이저로 장식한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의 플래티넘 평형추.

가격: 200,000 스위스 프랑 / 220,000 유로 / 207,500 달러

소재: 블루 사파이어

방수: 3ATM

케이스: 46mm

다이얼: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을 갖춘 오픈워크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으로 마감 처리한 러버, 티타늄 폴딩 클래스프 장착



DEFY ZERO G

레퍼런스: 04.9000.8812/51.R584

핵심 사항: 풀 트랜스페어런트 사파이어 케이스. 전체 스켈레톤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8812. 레귤레이팅 기구를 수평으로 배치한 "그라비티 컨트롤" 회전 모듈. 현재는 초기 크기에서 30% 정도로 축소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해양 크로노미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 오픈워크 다이얼. 무브먼트는 그라비티 컨트롤 케이스와 관련된 특허 1개로 보호. 10피스 리미티드 에디션.

무브먼트: 엘 프리메로 8812

진동수: 시간당 36,000회(5Hz)

파워 리저브: 50시간

기능: 12시 방향에 편심 위치한 아워 및 미닛 핸드, 9시 방향에 스몰 세컨즈, 6시 방향에 자체 중력 제어 모듈,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 표시창

마감: 특별한 투톤(블루 및 로듐) 시그니처로 장식된 플레이트와 브릿지 + 밀링 처리한 별들이 수놓인 하늘. 레이저로 장식한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의 플래티넘 평형추.

가격: 200,000 스위스 프랑 / 220,000 유로 / 207,500 달러

소재: 투명 사파이어

방수: 3ATM

케이스: 46mm

다이얼: 라피스 라줄리 다이얼을 갖춘 오픈워크

아워 마커: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핸즈: 로듐 도금, 각면 처리 및 슈퍼 루미노바 SLN C1 코팅

브레이슬릿 & 버클: 블루 엘리게이터 가죽으로 안감 처리한 러버, 티타늄 폴딩 클래스프 장착

